

일본의 데님 생지

- 세계의 톱 레벨이지만 더욱 향상시켜야 <2/2>

이와 같이 일본의 데님 업계는 많은 뛰어난 배경이나 실적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한가롭게 방심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태이다. 일본의 여러 뛰어난 수법을 외국의 여러 나라들이 맹렬하게 따라오고 있으며 모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주가 뛰어난 기능공의 기술을 자랑하는 이탈리아는 물론, 후진이라고 믿던 터키, 그리고 중국의 일부 데님 생지의 레벨 업(level up)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조그만한 튀니지의 진즈도 구미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으로 흘러들어온 구미계 SPA(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evel apparel : 어패럴 製造 小賣業)의 직영 매장이나 백화점 등에 이들 나라에서 만든 데님의 진즈를 진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본 진즈 전문 체인(chain)에서 외국의 데님을 사용한 PB(Private brand) 진즈를 기획하는 움직임도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본에서 개발되는 데님 직포는 어떻게 우위성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강점을 이어받아 발전시킨 제 5, 제 6의 ‘응용편(應用編)’ 전략의 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인데, 먼저 그 중의 하나는 데님 업계 이외의 기술이나 발상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메이지 시대(明治 時代) 후로 일본 섬유 업계는 견(絹)이나 울(wool), 면방적과 화합섬으로 ‘방(紡), 직·편(織·編), 염(染)’의 기술을 업종을 초월하여 종합적으로 연휴(連携)함으로써 발전해왔다. 그 중에 새로 시작한 데님 업계는 일종의 특수 집단으로써 어느 정도 다르게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일본의 다른 섬유 업종과 연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연휴의 사례로는 아사히가세이(旭化城)와 구라보가 손을 잡고 추진한 ‘J-파이버 프로젝트’로 보온이나 촉감에 효과가 있는 화합섬 혼방(化合纖 混紡)의 진즈 개발이나 구로키가 데이진(帝人)의 ‘광발색 섬유(光發色 纖維)’를 활용하여 광택 데님을 개발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면방적 기업 본체의 셔츠지 등의 가공 기술을 데님에 활용하는 사례로, 저수축 상품이나 주름 방지 상품 등을 들 수 있는데 해외 시장에서 유효한

세일즈 포인트(sales point)가 되고 있다. 합섬 등 다른 섬유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도 데님이나 진즈 소재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idea)를 내주는 것도 필요하다.

가장 소중한 포인트(point)는 일본 소비자의 니즈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과, 반대로 상품이 소비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소매점 현장과 서로 좋은 관계를 지키는 것 등이다.

링(ring)이나 로프(rope) 염색 등의 기술을 잘 지켜온 것은 일본 사람의 민감한 의복 감각을 소중하게 지켜온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값싼 것만을 찾고 있어서는 해외에서 볼 수 있듯이 중급 이하가 되는 품위의 진즈로 타락(墮落)해 버릴 수도 있다. 첨단적인 진즈 전문점(jeans 専門店)으로 찾아오는 고객과, 그 고객의 니즈를 캐치할 수 있는 우수한 점포 스태프(店鋪 staff)를 잘 아끼며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세계에서 인기가 있는 닌텐도 게임이나 샤프(sharp)의 액정 기술(液晶 技術)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소비자에게 질적으로 높은 레벨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높은 소비 감성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데님으로 상품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습마찰 견뢰도(濕摩擦 堅牢度)를 향상시키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 조금 물에 젖은 상태이면 데님의 감색은 내의나 가죽 가방 등을 이염(移染)시킬 수도 있다. 현대의 양산형 데님 염색(量産型 denim 染色)은, 분자 덩어리가 커서 물에 잘 녹는 합성 인디고 염료(合成 indigo 染料)를 산화 방식으로 면의 표면에 ‘얹어 놓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천연의 남염색(藍染色, 쪽염색)과 같이 점차로 ‘색이 바랜다.’는 것이 미적인 평가 포인트가 되고 있으며, 전 세계의 백화점에서도 색바랜은 거의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농색 데님 진즈(濃色 denim jeans)에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파리의 루이비통사에는 아주 비싼 가방에 이염된 데님의 색을 수선하는 부서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러한 ‘초목 염색(草木 染色)’의 의식을 끝없이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진즈가 앞으로 50 ~ 100년 후에도 발전한다고 생각할 때, 이 마찰 견뢰도를 향상시켜 근본적으로 개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단스렌계 염료(indanthrene系 染料)를 다시 잘 검토하여 염착도(染着度)가 안정된 화합물을 발명하거나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술 대국인 일본의 종합적인 기술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의 거장(巨匠) 섬유 기술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근대적인 데님 생지가 개발되어 시장에 보급된 지 약 1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할 일은 많이 남아 있다.♣